

# 경제와 노후생활

## ■ 경제

- 경제 동향
- 산업 이슈 : 관광·레저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경제 이슈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 ■ 노후생활

- 테마 :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여가 대비
- 세심록 : 노래, 노년의 또 다른 학습 방법
- 북 리뷰 :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안병영 著)

□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2013년 신규취업자 38.6만 명 증가

-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신규취업자는 38.6만 명 늘어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청년고용은 부진이 심화됨
  - (고용지표 동향) 2013년 신규취업자는 하반기에 성장률 회복, 추경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38.6만 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15~64세)은 64.4%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대비 0.1%p 감소
  - (산업별) 서비스업(+31.9만 명)이 전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7.9만 명) 역시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건설업(-1.9만 명) 고용은 부진
  - (연령별)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가운데 청년층(-5.0만 명) 고용은 부진이 심화

○ 금융 동향 :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확대

- 안정되던 국내 금융시장이 1월 후반 들어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 경제 불안의 여파로 환율상승, 주가하락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원/달러환율)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전망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과 함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취약 신흥국 디폴트 위기 등으로 상승세가 가속
  - (KOSPI) 연초 급락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는 美·유로존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1월 후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국의 위기감 고조로 하락세로 반전
  - (국고채금리) 지난 9일 기준금리 동결로 안정세를 보이던 국고채(3년) 금리는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美 국채금리의 하락 등으로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2월	4/4	1/10	1/27
실물지표	GDP성장률(%)	2.0	1.5	2.3	3.3	-	-	-	3.9		
	제조업생산(%)	0.8	-1.8	-0.8	0.0	3.3	-1.3	-	-		
	소비자물가(%)	2.2	1.6	1.2	1.4	0.9	1.2	1.1	1.1		-
	실업률(%)	3.2	3.6	3.1	3.0	2.8	2.7	-	-		
	경상수지(억달러)	480.8	99.7	198.0	189.8	95.1	60.3	-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3.13	2.68	2.67	3.01	2.83	2.94	2.94	2.90	2.91	2.90
	원/달러(원)	1,126.8	1,084.1	1,122.2	1,112.2	1,066.8	1,062.8	1,056.7	1,062.1	1,064.8	1,063.4
	코스피지수(P)	1930.4	1985.4	1932.6	1917.7	2029.7	2009.9	1988.3	2009.3	1946.1	1952.6

주 : GDP성장률,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최근 2주간 평균값임.

## □ 산업 이슈 : 관광·레저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 (범위) 관광·레저 산업은 국내외 관광객과 여가인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 ① 관광·여행업, ② 레저·스포츠업, ③ 면세점업 등으로 구성

- 관광·여행업 :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숙박, 운송, 오락, 휴양, 음식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광 부대 시설을 갖추어 이용 기반 제공
- 레저·스포츠업 : 유원시설(테마파크, 동식물원)과 운동(골프장, 스키장), 성인오락(카지노 등)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
- 면세점업 : 주로 국외로 나가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보세판매장

### ○ 업종별 시장 규모

- 관광·여행업 : 2011년 매출액 16.8조원 ('09~'11 연평균 성장률 17.2%)
  - 관광숙박업 : 6.1조원 (성장률 9.8%)
  - 여행업 : 4.4조원 (성장률 26.5%)
  - 부대사업 : 6.3조원 (성장률 19.3%)
- 레저·스포츠업 : 2011년 매출액 23.0조원 ('09~'11 연평균 성장률 -2.1%)
  - 유원시설업 : 1.0조원 (성장률 10.8%)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 3.6조원 (성장률 -1.6%)
  - 갠블링·배팅업 : 9.6조원 (성장률 -4.2%)
  - 기타 경기장 운영업 : 8.7조원 (성장률 -1.3%)
- 면세점업 : 2011년 매출액 5.4조원 ('09~'11 연평균 성장률 18.1%)
  - 면세점 시장은 2009년 3.9조원에서 2011년 5.4조원으로 연평균 18.1% 고성장

### ○ 최근 관광·레저 산업 동향

- (세계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2012년 사상 최초로 관광객 10억 명을 돌파
  - 2012년 전 세계 해외관광객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0억 3,500만명, 관광수입은 3.2% 증가한 1조 750억 달러에 달함

- (지역별) 유럽이 전세계 관광객수의 51.6%, 관광수입의 42.6%를 차지하며, 최근 아시아-환태평양은 비중 증가세, 북미는 보합,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세계 관광객수의 22.6%, 관광수입의 30.1%를 차지하며, 이의 약 절반은 동북아시아가 차지
  
- (국내 시장) 우리나라에 입국한 해외관광객은 2012년 1,114만 명(전년대비 +13.7%)이며, 이들이 지출한 관광수입은 134억 달러(전년대비 8.5%)에 달함
  - 지난 2001년~2012년 동안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7.3% 증가, 관광수입은 7% 증가
  - 1인당 소비액(=관광수입/방한 해외관광객)은 1,200 달러 대를 유지
  
- (주요국 비교)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전 세계 216개 국가지역중에서 해외관광객수 23위, 관광수입 21위, 1인당수입 36위
  - 최근 3개년 증감률은 관광객수 13%, 관광수입 17%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성장
  
- (관광객 국적)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에 입국한 해외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일본 관광객 감소 - 중국 관광객 증가'로 대조적 모습
  - 지난 2001년~2012년 동안 국적별 비중을 보면 일본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2001년 9%에서 지속 상승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관광객 비중은 2012년 31.6%이고, 다음이 중국으로 25.5% 차지
  - 교포와 미국 및 유럽 국적 관광객을 제외한 기타 관광객의 비중이 2012년 27.2%로 조금씩 증가세에 있어 관광객 국적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임

## ○ 시사점

- 관광레저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정책에 대응한 장기적인 사업 확장전략 수립
  - 첫째, 규모면에서 관광시설의 종합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수립
  - 둘째, 질적 고도화 요구로 늘어날 고부가 관광 사업(MICE, 의료, 크루즈)에 대응
  - 셋째, 운영 대행(아웃소싱) 서비스 및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 구축 검토
  - 넷째, 수요 다변화로 새롭게 부상할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모니터링을 강화

□ 경제 이슈 :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sup>1</sup>

- 2014년은 국내외 경기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출구전략, 일본의 엔저 등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자신감을 되찾고 기초체력을 다지며,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으로 삼고자 '희망요인'을 선정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경제	산업	사회·문화
①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②무역 'G7'으로 도약 ③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④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⑤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⑥나노 혁명의 가속화 ⑦요우커 500만 시대 ⑧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⑨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⑩지역경제의 재조명

-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약진

-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및 투자의 역할 강화, 정책적 여건에 따른 ICT의 도약, 서비스 산업의 고성장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7년 2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약 10년만인 2017년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한국 경제가 3만 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하락의 근본 원인인 투자 부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저생산성 및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 무역 'G7'으로 도약

- 3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한 한국 무역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빠른 수출 회복으로 향후 무역 'G7'으로 도약하게 될 전망
- 특히 2014년은 미국과 세계 경기 회복세, 제품 경쟁력 증대, 경제영토 확장 지속 등으로 우리 수출입 경기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무역 7강을 향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따라서 수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투자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등이 필요

- 고용률 신기록 퍼레이드

- 2012년 고용률(15~64세 기준)이 64.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2013년에는 64.4%, 2014년에는 65.2%로 신기록 퍼레이드가 지속될 전망

<sup>1</sup>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4년 한국경제 희망요인” 14-2호(통권 573호), (2014. 01. 10.) 에서 발췌 요약.

- 경기회복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세를 주도할 것
  - 또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에 힘입어 여성과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
-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에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취득세 인하 등 국회통과 법안 등이 효력을 발휘하여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수도권 주택의 매수우위지수와 전세수급지수 등의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바, 앞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지속 반등을 위해서는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가계부채 연착륙 등 주택시장관련 펀더멘털의 개선이 시급
- 융합을 통한 ICT 재도약**
- 이미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ICT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
  - ICT융합 신제품의 확산, ICT융합 서비스의 다양화, 유·무형 창조역량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전망
- 나노 혁명의 본격화**
-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기술인 나노 혁명이 본격화 될 전망
  -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정부 투자를 통해 나노 기술력은 최고 수준에 진입하였고, 그 동안 이룩한 성과를 상용화하여 산업적, 경제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될 것
  - 따라서 나노융합 산업 활성화로 기존 제조업의 기술 정체 상태 상태와 우리 경제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이 될 것
- 요우커 500만 시대**
-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어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추월했으며 2014년에는 요우커 500만 시대를 맞이할 전망
  - 요우커 급증 현상은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일본 원전사고 및 반일감정에 따른 상대적 우위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한국의 쇼핑 관광 매력, 비자 발급의 편의성 등 대내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쇼핑 관광 활성화, 오락·레저·의료·MICE 상품 개발 등 관광 상품의 다양화 및 차별화 노력이 요구될 것

### - 의료서비스 수출의 본격화

- 2014년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관광이 경제 전체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차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이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의료관광이 세계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정착했고, 거대한 중국 중산층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 등이 있었기 때문
- 한국의료서비스 체계의 장점은 살리면서 의료관광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

### - 스포츠 강국으로 위상 제고

- 2010년 동계올림픽 및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2014년에도 기세를 이어가면서 2월 소치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과 6월의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선전이 기대
- 이를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관련 소비 진작을 비롯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민의 자긍심 고취, 사회 통합의 계기 마련과 같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막대한 긍정적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 - 지역경제의 재조명

-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 20년이 시작
- 오랜 지방자치의 결과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체감경기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등 지역경제가 재조명받고 있음
- 2002년 21만여명에 달했던 非수도권의 인구 순유출은 2012년 6,900명으로 급감했으며,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53%까지 증가했고, 세종시 공무원 1만명 시대가 열림
- 2012년 귀농가구는 1만 가구를 넘었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2006년 1월 대비 50% 이상 상승

김 동 열 기업정책연구실장 외 (2072-6213, dykim@hri.co.kr)

□ **테마 : 100세 시대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여가 대비**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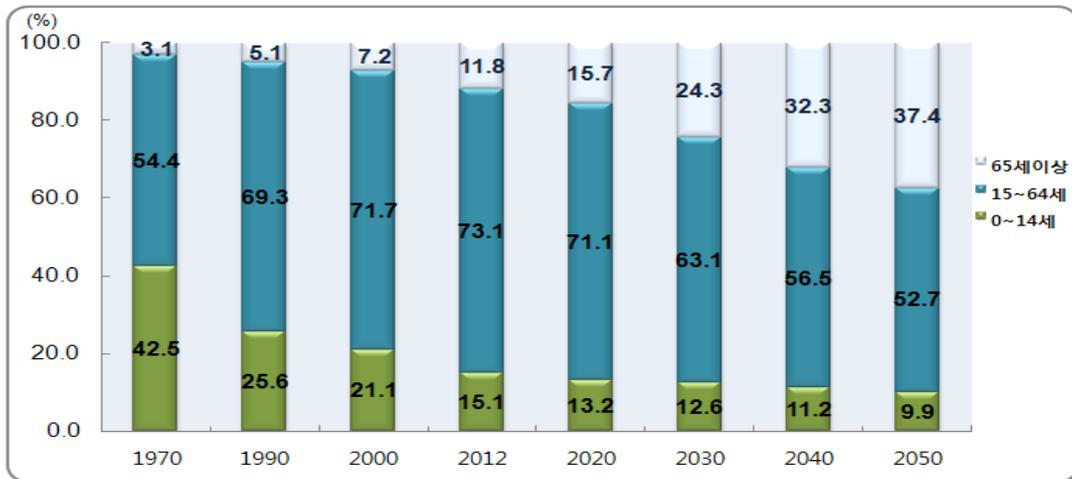
- **고령인구의 증가**
  - 2012년 현재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 수준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여가현황**
  - 현재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34.7%)', 'TV 및 DVD 시청(17.1%)', '사고 관련일(12.0%)', '휴식(10.0%)' 등의 순임
-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
  - 베이비붐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취업 및 결혼'(33.8%), '자녀교육'(25.6%), '본인건강'(18.7%), '생계비마련'(8.8%), '노후준비'(6.4%) 순임
  - 노후생활의 희망순위는 '취미생활'(42.3%), '소득창출'(18.8%) '자원봉사'(16.8%) '종교 활동'(9.6%) 순으로 나타남
-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사업 방향**
  - 현재 평생교육지원 사업(46.7%)에 집중되어 있는데,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지원사업 비중은 다소 낮추어 유지하고, 노후생활설계지원, 건강 및 문화여가육성지원 사업의 강화가 필요함

**(1) 고령화 문제와 노인여가 현황**

○ **고령인구의 증가**

- 2012년 현재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 수준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중은 2012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현재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17.2년)보다 여자(21.6년)가 4.4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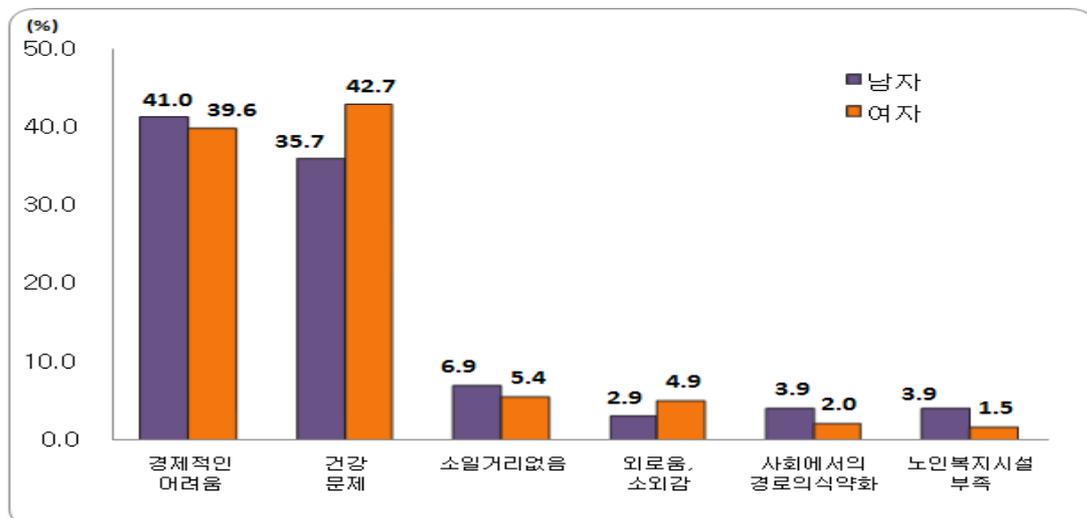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 고령자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여가현황

- 고령자들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에 직면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로 남자 고령자는 40.6%, 여자 고령자는 21.8%로 나타남
- 2012년 통계에 의하면 고령층(55~79세) 중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0%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취업 희망 고령층이 일하기 원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54.4%)'가 가장 높았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36.5%)'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고령자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 34.7%, 다음은 'TV 및 DVD 시청(17.1%)', '사교 관련일(12.0%)', '휴식(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고령자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비율을 13.8%이나, 계, 동창회 등의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고령자는 35.4%임
  - 노인들의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77.7%로 주로 친목단체와 종교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의 단체활동 참여율이 높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노인은 12.0%(65세이상 기준 22.7%)이며 향후 봉사활동 참여의향이 있는 노인은 15.5%로 나타남
  - 컴퓨터 및 인터넷이용 경험이 있는 노인이 11.4%이며, 남성노인 19.1%, 여성노인 5.7%인 것으로 나타남

## (2) 베이비붐세대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과제

### ○ 신노인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

-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에 대한 인식
  - 베이비붐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취업 및 결혼' 33.8%, '자녀교육' 25.6%, '본인건강' 18.7%, '생계비마련' 8.8%, '노후준비' 6.4%로 나타남
  - 노후생활에 희망순위는 '취미생활' 42.3%, '소득창출' 18.8%, '자원봉사' 16.8%, '종교활동' 9.6% 순으로 나타남

<b>&lt; 베이비붐세대의 특징 &gt;</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55년부터 1963년사이 태어난 세대</li> <li>2. 인구의 성별 분포는 여성 49.7%, 남성이 50.3%</li> <li>3. 가족생활은 유배유자 87%, 이혼 6.5%, 사별 3.5%를 차지</li> <li>4. 가구형태는 핵가족 74.1%, 부부세대 9.4%, 1인가구 5.5%로 구성</li> <li>5.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부담을 당연시 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자녀에게 의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li> <li>6. 교육수준은 고졸이 45.3%, 중졸 18.6%, 대졸 16.4% (성별로 보면 여성은 61.2%가 고졸이상, 남성은 78%가 고졸이상)</li> <li>7. 경제활동은 여성 62.9%, 남성 91.4%로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77.3%</li> <li>8.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경우가 68.5%이나, 취약계층에서는 만성질환, 우울증상의 유병률 높음</li> </ol>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

- 베이비붐세대의 69.4%는 현재의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함하고 있어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큼
- 취미· 문화활동은 27.7%가 40대 이후부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34.2%가 다른 나라의 예술, 음식, 문화, 여행상품등에 관심을 보임
- 베이비붐세대의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7.3%로 낮은 편이나 향후 자원봉사 참여에 의사는 44%로 나타남

○ 노년 설계를 통해 활기찬 노년기 준비

-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문제

- 핵가족화에 의한 노인의 탈가족화
- 노인가구와 단독가구 급증
- 조기정년으로 경제적 어려움
- 노인의 소외감 및 무료감 증가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사회관계망유지, 노후소득 준비,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증가

-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대안은 노년설계

- 경제적 활동, 사회공헌활동으로 노년설계가 필요함
- 노년설계는 65세 이후의 노년기간에 대한 적극적인 설계로, 여가기간의 생활설계, 건강유지 설계, 사회참여 설계가 필요함

○ 노년기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지원방안 마련

- 은퇴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노후의 일자리 희망 프로그램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마련

-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정보화 활용교육으로 사회참여를 지속적인 유지
-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직업개발과 훈련으로 노년기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필요
- 긴 노년기에 경제적 활동과 소득이 없이는 사회공헌활동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방안강구가 필요
- 노년기의 지원은 공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적인 지원부분의 활성화 필요

-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긴 노년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유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
- 노년기 설계 중에 사회참여설계로 가장 인생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 등 활성화 필요
- 자원봉사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이 필요

### (3) 노인복지관의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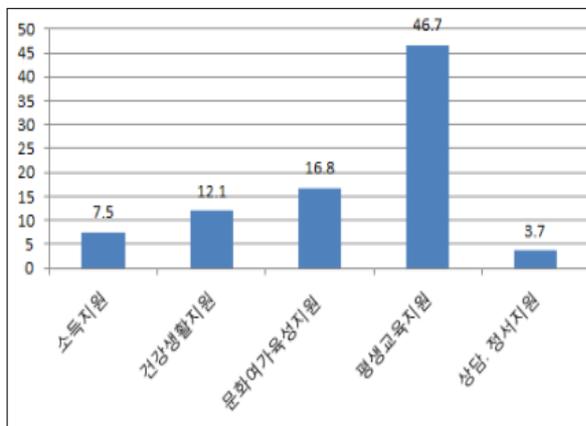
#### ○ 노인복지관의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필요

-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자기성장의 공급원이자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중요한 원천임
  -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의 목적은 노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다 창조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접할 수 있게 돕는 것임
  -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은 현명하게 노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세대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는 방향을 제시해야함
  - 정보활용교육, 노인자원봉사, 노인일자리사업, 평생교육사업, 노후설계 상담지원 사업 등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마련과 민간단체의 지원의 증가가 필요함

#### ○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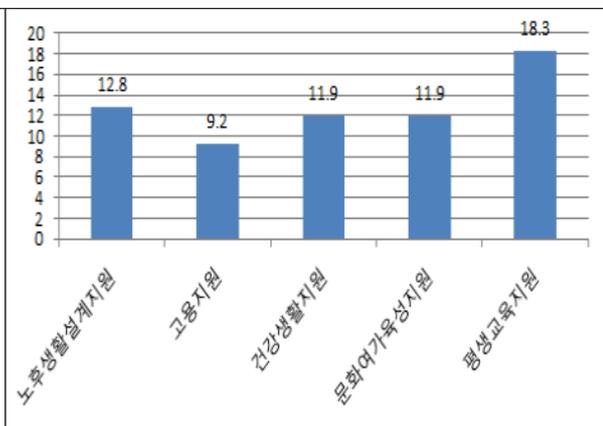
-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복지관의 대비 정도는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강화되어야 할 사업은 노후생활 설계지원으로 나타남
  -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현재 노인복지관 사업은 '평생교육 지원 사업'(46.7%)에 집중되어 있음
  - 향후 강화되어야 할 사업은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18.3%로 가장 높으며, '노후생활 설계지원'(12.8%), '건강 및 문화여가 육성지원'(11.9%)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복지관 우선사업 1순위 >



자료 : 한국노인복지관협회(2013년)

< 복지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업 1순위 >



자료 : 한국노인복지관협회(2013년)

○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의 지원 강화

- 노년기를 함께 보내는 동년배 중심의 여가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
  - 노년기에 자신에게 맞는 설계지원서비스 제공 필요
  - 지원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
  - 노인복지관의 노년설계서비스기능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개발
  - NGO단체 등을 통한 효율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사회참여 활동의 다양화 필요

<b>&lt; 노년기 사회참여 활동의 지원 기관 &gt;</b>
1. 노인복지관 : 지역의 노인여가전문지원서비스 (건강유지 예방지원, 평생교육, 사회참여활동, 취업지원, 취약노인보호)
2. 고용정보원 : 고용정보센터에 의한 일자리 지원
3. 국민연금공단 : 노후생활상담, 소득상담 등 비재무 영역의 진단 및 상담지원
4.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 퇴직자들의 사회공헌 활동 교육지원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이기민 사무총장(02-702-6080, [lgm@daum.net](mailto:lgm@daum.net))

<참고문헌>

- 한국노년학회(2010).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제도 구축방향.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 대회, 한국노년학회, pp33-120.
- 한국노년학회(2010). 고령화시대 신 뉴딜정책구축의 방향. 제5회 서울노년학 국제학술 심포지움, pp121-172.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1). 한국신노년-베이비붐세대를 향한 노인복지관의 변화전략. 춘계대회, pp35-66.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11). 100세 시대 노인여가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정립.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베이비부머 은퇴후 생활지원을 위한 新복지모형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 □ 세심록(洗心錄)

### ○ 노래, 노년의 또 다른 학습 방법

인간은 늙는다. 나이가 들에 따라 육체의 움직임은 둔해진다. 기억력도 이전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어지고 그 자리를 즐거웠던 옛 기억을 떠 올리며 소일 삼는 노년의 권태로 채운다.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라는 영어속담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런 특권 아닌 특권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사용처를 살아생전에 찾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식에 계속 노출되고 이를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숙명처럼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자신이 한창 때를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제기되는 과제는 떨어지는 기억력과 육체적 능력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는 일일 것이다. 이에 최근의 과학적 연구 성과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부학적으로 뇌에서 우리가 해마(hippocampus)로 부르는 부분과 전두엽이 기억을 관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매일 수백만 건의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해마나 전두엽이 노화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쇠퇴하면 학습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습은 기억하는 것과 기억한 것을 다시 불러오는 것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둘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쉽다고 한다. 곧, 효율적으로 기억한 것을 불러올 수 있다면 해마나 전두엽의 쇠퇴로 인한 학습능력의 저하를 보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 특히 뇌신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기억에 매달리고 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본 것보다 불일치한 것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의견일치를 본 소수 중 하나는 음악에 맞춰진 정보가 가장 기억하고 이를 되살리기에 좋다는 것이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시의 워싱턴 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에서 심리학교수로 있는 로디거(Roediger, Henry L, III)는 음악이 리듬을 만들고 이 리듬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여는데 일종의 열쇠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누군가 자기에게 모든 비틀즈 노래의 가사들을 말해보라고 하면 도저히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가능한 것을 쉬운 예로 들었다. 그는 인간이 노래와 춤을 머리 속에 기억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 이용해 왔다고 추가했다. 로디거 교수는 곧 출판될 책인 “Make

It Stick: The Science of Successful Learning”을 통해 노래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이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된 예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 영국병원에서 근무자들이 병원의 복잡하고 긴 천식관련 가이드라인을 암기하지 못하자 이에 짜증난 의사가 이를 노래로 만들어 전파시킴으로써 모두가 암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한다.

사실 인간의 역사에 있어 문자시대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인류문학의 효시로 간주되는 고대 그리스의 호머와 오디세이는 문자로 남겨지기 전 오래 세월을 오로지 구전을 통해 특히 노래로 불리면서 전해졌었다. 이는 불경에도 적용된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남긴 방대한 말씀이 불경이라는 기록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일정한 리듬을 따라 이것들이 외워지고 그대로 후세에 전해졌다는데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인 판소리가 글자 한자 변형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리듬을 타는 일종의 노래였기 때문이다. 암기는 뇌를 젊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노래를 통한 암기는 오래된 학습방법으로 방대한 정보처리에 아주 탁월한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셈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에 노래를 통한 기억은 두뇌 건강 유지와 새로운 정보습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적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공자(B.C.551-479) : 중국의 철학자

## □ 북리뷰

- 제목: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 저자: 안병영

- 김영삼,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안병영 교수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등을 역임. 은퇴 이후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음.

## ○ 주요 내용

- **합스부르크제국의 영광, 제1공화국의 실패, 제2공화국의 부활**

- 1278년부터 1918년까지 640년간 통치하면서 유럽에서 2번째 큰 나라였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11개의 다민족 국가로서 '합의와 상생'의 전통을 오스트리아에 물려줌
-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심화로 실패했던 제1공화국(1918-1938)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제2공화국(1945~)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대 정당이 대연정과 합의제 정치를 통해 '중립화 통일'을 성취하고, 유럽의 강소부국으로 도약함

- **오스트리아 국가모델은 합의제 정치, 영세 중립국, 사회적 파트너십,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등의 요소로 구성됨**

- 진보와 보수 양대 정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과 합의제 정치가 정착되어 정책의 추진력이 강하며, 군사 동맹과 외국군 기지를 거부하는 중립을 유지
- 노사정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물가와 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업률을 낮췄으며, 원자력발전예의 의존도를 낮추고,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대륙형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벗어나 가족과 고용복지, 인적 자원의 역량을 위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

-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 수상을 역임한 건국의 아버지 카를 레너와 오스트리아 현대화의 아버지 크라이스키가 강소부국 오스트리아의 오늘을 있게 함**

- 1918년과 1945년, 건국의 중요한 시점에 수상을 맡아 점진적 사회주의 노선과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레너는 오스트리아의 건국과 중립화의 기틀을 마련
- 1970년부터 1983년까지 13년간 시민당 단독정부를 이끌었던 크라이스키는 1970년대의 석유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오스트리아를 강소부국으로 끌어 올렸으며, 수도 빈을 국제외교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함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